

4.3그룹의 모더니즘과 이 시대 우리의 건축

영문제목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글. 김현섭
Kim, Hyonsob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첫 문장은 근대건축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채 외래사조를 무분별하게 수입한 한국 현대건축의 혼란을 꼬집은 이종상의 말이다(『1992.12 서울, 1992). 당대의 상황을 “세기말”로 여기며 포스트모던이나 해체건축의 모방, 그리고 상업주의적 난개발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동료들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승효상은 현란한 형태와 색상의 건축적 현실을 19세기 말 유럽의 “포츨린 도시”에 빗댔는데(『빈자의 미학, 1992), 이들에게 근대건축을 강요했던 김광현은 진정한 포스트모더니스트나 해체주의자가 되려면 먼저 근대건축에 철저히야 함을 역설했다(『근대건축 세미나 II, 1992.5.30). 여기에 동반된 것이 아돌프 로스나 르코르뷔지에, 그리고 루이스 칸과 같은 대표적 모더니스트들에 대한 학습이었다. 침묵과 빛, 건축의 영속성 등 이 거장들의 건축에 대한 깊은 탐색은 “근대건축은 ... 실패했다”는 식의 찰스 쟁크스적 진단에 제동을 건다. 혹시나 실패한 게 있다면 그건 아마도 전체의 일부인 “국제주의”일지 모른다. 고로 근대건축을, 혹은 건축의 “모더니즘”을 다시 읽고 “재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민현식에게서 가져온 두 번째 문장이 이를 말한다(『지혜의 시대, 우리의 건축, 1994).

모더니즘의 재해석에 대한 결론, 즉 세 번째 문장의 콘텍스트에서 우경국이 각종의 답사와 독서를 통해 얻은 결론은 “비판적 모더니즘” 혹은 “비판적 전통건축”을 통한 대응이었다(『흐르는 회색 공간, 1994). 급격한 세계화와 상업화 속에서 우리 건축이 무분별한 외래사조 및 형태어휘로 가득했던 1990년대 초, 4.3의 젊은이들은 서구의 모더니즘을 중요한 공통 기반으로 학습하고 그것을 한국적 현실에 “비판적”으로 적용하려 했다. 비록 각각이 모더니즘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편차가 컸지만 말이다. 즉, 그들이 수용한 서구의 모더니즘은 필연적으로 여러 비판적 필터를 통해 걸러진 “비판적 모더니즘”일 수밖에 없었다. 그 필터는 “마당의 비움”이든, “서정적 추상”이든, 현대 “도시의 풍경”이든, 결국 우리의 ‘무엇’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필터는, 민현식(1994)에 근거해 말한다면, “왜곡된 민족주의”나 “감상적 한국성”이 아닌 “세계적 보편성”을 내포해야 했다. 이는 동시에 “맹목적인 근대추종”과 “로맨틱한 서구부정” 모두에 대한 경계 역시도 함의하는 것이었다.

서구의 모더니즘을 우리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비판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새롭지 않은, 이전부터 있었던 당연한 논지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바는 지난 세기 말 우리 젊은 건축인들이 주장한 비판적 모더니즘이 반성적 모더니즘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들의 문맥에서는 케네스 프랭트의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1983/1985)를 떠올릴 만하다. 주지하듯 이 개념은 보편적 세

계 문명을 수용하면서도 지역 문화의 가치를 견지하려는 패러독스적 태도로서 현재까지도 영향력이 작지 않다. 우경국은 4.3그룹 결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출판한 글에서 자신들이 표출한 이념 중 하나가 “비판적 지역주의”였다고 주장했는데(『공간, 1990.8), 앞서 본 민현식의 어법이 프랭트의 입장과 조응한다. “현대 문명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는” 주변에서 대안적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면도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요점은 프랭트이라는 세계적 비평가의 개념에 대한 칭송이 물론 아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개념을 비판할 여유도 누린다.) 그보다는 4.3그룹이 당대 제기된 유력한 건축 개념을 논의할 만큼 세계적 흐름에 민감히 반응했고, 실제 이를 한국적 현실에 대입하려 나름 고투했다는 사실이다. 김광현이 『이 시대 우리의 건축』 서문에서 비판했듯 이들의 “유토피아의 언어”가 한계를 보이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들은 이러한 고투 위에 성장했고 부족하나마 현재의 한국건축을 일궈냈다. 이 점이야말로 4.3그룹이 한 세대를 지난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그들의 족적이 외형적으로는 건축계의 교육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우리의 건축”이 어떠한가 할까에 관한 담론이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2020년, “이 시대 우리의 건축”은 어떠한가 할까? 이제는 ‘우리의 흐름’이 ‘세계적 흐름’이라 말해야 할 때가 오고 있지 않나? 선배들의 물음에 후배들이 답해야 할 차례다.***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4.3 Group and Modernism in Korea



김현섭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영국 셰필드대학교에서 서양 근대건축을 공부했고, 2008년 모교인 고려대에 임용된 이래 건축역사·이론·비평의 교육과 연구에 임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한국 현대건축에 대한 비판적 역사 서술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건축수업: 서양 근대건축사』(2016), 『건축을 사유하다: 건축이론 입문』(2017), 『DDP Controversy and the Dilemma of H-Sang Seung’s “Landscape”』(2018), 『The Hanok Paradox: Modernity and Myth in the Revival of the Traditional Korean House』(2019) 등의 단행본과 논문을 출판했다.
archistory@korea.ac.kr